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4)

Ⅲ.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1) 발명학회의 성격 변화



임종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1932년 6월 발명학회의 재건 역시 김용관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박길룡과 현득영은 학회의 전망에 대해 그리 낙관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건 문제에도 소극적이었다.⁴²⁾ 그들은 김용관의 고집에 따라 학회의 재건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무는 모두 김용관에게 일임하고 일선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김용관은 학회의 사무소에 상근하면서 학회의 취지를 각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고⁴³⁾ 곧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박길룡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의외로” 특허수속 대무를 의뢰하거나 발명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는 발명가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학회의 기본적인 운영 자체에는 곤란이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용관이 발명학회를 창립할 당시와는 달리 192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 발명가들의 발명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발명에 대한 사

목 차

- I. 서 론
- II. 발명진흥과 물산장려(김용관과 발명학회)
- III. 발명진흥에서 과학운동으로
- IV. 이화학연구기관 설립논의(상이한 과학기술관 및 근대화관의 표출)
- V. 과학운동의 전개와 변질
- VI. 요약과 결론

(고딕은 이만호 명주는 지난 및 다음호)

42) 창립 당시의 상황은 같은 글, 4쪽에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3) 예를 들어 김용관은 신문지상을 통해 발명학회에 대한 선전을 시도하였다. 「東亞日報」 1932년 8월 19일자 기사에는 발명학회가 재건된 경위,하고자 하는 사업, 사무소 위치 등이 소개되어 있다.

44) 박길룡, 앞의 글(주25), 4. 김용관은 1932년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까지 발명학회가 특허출원을 대행한 건수가 4건, 수속 의뢰를 받아 출원중에 있는 건수가 10건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32년 12월 7일.

회의 관심도 점차 높아 갔다. 변화는 1926년부터 나타났는데, 이 한 해만도 조선인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건수가 18건에 이르러 이전 15년간의 실적을 넘어섰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1926년부터 발명학회가 재건된 1932년까지 등록건수는 총 118건에 달하게 되었다.⁴⁵⁾ 이에 비례하여 발명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일간신문들은 조선인의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활동 중인 孫昌植, 평양의 宋贊用 등 몇몇 발명영웅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⁴⁶⁾ 나아가 이들은 社說을 통해 발명가 집단의 성장을 환영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사회적 지원을 호소하였다.⁴⁷⁾ 발명학회 운영의 호조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회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 김용관 혼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게 되어, 이사로서 이름만 걸어두고 있던 박길룡과 현득영이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1933년 2월 7일에는 공석중에 있던 학회의 이사장에 박길룡을 선출함으로써 학회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변호사 李仁이 발명학회의 전담 변리사로 참여하여 특허수속 대무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⁸⁾ 그는 2월 22일 제3회 이사회에서 朝鮮製絲의 이사 劉銓, 중앙시험소장 및 경성고공

교장 山村銳吉과 함께 발명학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6월에는 박길룡을 대신하여 발명학회의 이사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발명진흥운동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었다.⁴⁹⁾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명학회와 이후의 科學知識普及會를 주도하게 될 집단이 형성되었다. 김용관, 박길룡, 현득영은 1924년 발명학회 설립 이래로 발명의 진흥을 모색해 온 동료로서, 재건된 발명학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들이었고, 이후 과학지식보급회에서도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선출되어 발명학회와 과학지식보급회 전체를 주도하게 되었다. 李仁은 자신의 재력과 사회적 명성, 민족유지들과의 두터운 교분 등을 통하여 발명학회와 이후 과학지식보급회 활동의 가장 충실한 후원자로서, 그리고 발명학회의 이사장, 과학지식보급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그 자신이 주도적 활동가로서 활약하였다.

이들 김용관, 이인, 박길룡, 현득영 4인의 주도인물은 이념적으로도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앞 절에서 살펴 보았던 김용관의 입장, 즉 발명진흥을 통한 자립적 공업화론에 공감하고 있었다. 박길룡의 경우, 그의 「科學朝鮮」 창간사를 통해 그가 발명학회의 목표를 물산장려운동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았거니와, 「科學朝鮮」 1935년 11월호에서는 '소규모 공업진흥을

45) 金容瓏, 앞의 글(주26), 16-17. 이 통계에 따르면 1932년에는 10건이 등록되었는데, 김용관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받아들인다면 그 중 4건은 그 출원과정에서 발명학회의 지원을 받은 것이었다.

46) 孫昌植을 다룬 기사는 「少年發明家 孫昌植君」, 「新東亞」 1932년 2월호, 46-47; 「동아일보」 1932년 9월1일. 또한 「수상스기」의 발명으로 유명해진 평양의 宋贊用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2년 11월 30일; 1933년 1월23일 등을 참조할 것.

47) 예를 들어 「조선의 천재와 환경 인물을 아끼고 擁護하자」, 「동아일보」 1932년 12월4일; 「조선인과 발명장려의 필요」, 「조선일보」 1933년 6월 17일 등.

48) 이사 3인의 업무 분담과 이인의 결함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33년 1월 10일에 실려 있다. 이인은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변호하면서 명성을 높여 왔던 변호사였고, 신간회에도 참여한 바 있었으며 당시에는 조선어학회, 조선물산장려회 등의 여러 민족운동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던 명망가였다. 그의 활동 경력에 대해서는 이인, 「민세의 증인」(명지대학교 출판부, 1974)을 참조할 것.

49) 1933년 초 발명학회의 이사회 기록은 「과학조선」 1933년 7·8월호, 63-64에 실려 있다.

통한 일용물품의 자작자급'을 주장하여 김용관과 같은 소규모 공업진흥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⁵⁰⁾ 이인은 그 자신이 조선물산장려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고, 발명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던 1933년에는 李鍾麟의 뒤를 이어 조선물산장려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⁵¹⁾ 또한 그는 김용관의 발명진흥론에 동조하여, 「科學朝鮮」을 통해 「조선은 발명의 길에 정진하여 개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²⁾ 이렇듯 1933년 발명학회를 중심으로 모여 발명의 진흥을 통한 물산의 장려라는 노선을 공유했고, 이후 과학지식보급회에서도 주도적 인물들이었던 이들을 편의상 「發明學會 幹部」라고 부르기로 한다.⁵³⁾

이인의 참여와 학회의 체제 정비 이후 발명학회는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조선인 발명가들이 차츰 모여들어 학회는 실질적인 발명가 단체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32년 6월 김용관 등 3인으로 출발하여 그해 말까지 18인에 불과하던 회원 수는 이듬해 7월에 이르러 51명으로 증가하였고,⁵⁴⁾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1933년 2월 4일 소년발명가들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發明同友會」가 창립되었는데, 발명학회는 이를 적극 후원하였다.⁵⁵⁾ 5월 5일의 이사회에서는 학회 산하

에 「鑛務部」를 신설하고 경성고공을 졸업한 광산 기술자 姜鑛斗를 그 담당이사로 선임하여 조선인 광산업자들을 위한 광업지원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명학회가 재건 당시의 우려를 씻고 발전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용관 등 학회의 간부들은 이 정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발명학회의 안정이란 본격적인 발명 및 공업기술 진흥사업에 이르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발명가들의 특허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것만으로 발명 활동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이 민족 공업의 발전에 원활히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발명가들의 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도 원조해 줄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였다. 김용관은 「科學朝鮮」 창간호의 글을 통해 젊은 발명가들의 등장을 희망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면서도 그들의 「發明構成에 절대 필요한 이화학적 실험기관이 없어서」 새로 돌아나는 발명의 싹이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본격적인 발명의 진흥을 위해서는 발명학회를 넘어서는 「발명연구」 진흥기관 즉 理化學研究機關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김용관은 1924년 발명학회의 설립 당시에도 이의 설립을 주장한 적

50) 박길룡, 「생활의 과학화 3」, 「과학조선」, 1933년 11월호, 8.
 51) 이인은 1931년 4월의 정기총회에서 본부 및 경성지회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얼마 뒤에는 경성지회의 이사장으로서까지 선출되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곧 사임했다(「裝産」, 1931년 6월호, 33). 이인이 1933년 물산장려회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시의 조선물산장려회 기관지 「新興朝鮮」 창간호(1933년 10월호)에서 확인된다.
 52) 이인, 「발명은 고금 문명의 기초」, 「과학조선」, 1933년 6월호, 13.
 53) 「발명학회 간부」라는 표현은 박길룡이 「과학조선」 창간사에서 사용하였다. 박길룡은 이 표현을 1924년 발명학회 이후 「발명진흥과 이를 통한 조선 공업의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김용관 등의 경성고공 동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박길룡, 앞의 글(주25), 4. 필자는 박길룡의 표현을 빌어 「발명진흥을 통한 자립적 공업화론」을 공유한 발명학회 임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그 집단은 강진두, 정인관 등 이후 발명학회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이들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54) 물론 51명 전부가 발명가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학회의 임원 11명을 비롯하여 나경석, 정세권 등의 사회유지 몇몇이 포함되어 있었다. 1933년 7월 당시의 발명학회 회원명단은 「과학조선」 1933년 7·8월호, 65에 실려 있다.
 55) 「동아일보」, 1933년 2월 6일.

이 있었지만, 발명학회가 재건되어 안정 궤도에 올라서자 이제는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⁵⁶⁾ 그러나 김용관 등에게는 그러한 계획을 실현시킬 수단이 부족했다. 경성고공 출신의 젊은 기술자들이 주축이 된 발명학회의 자금력으로 본격적인 발명연구의 진흥과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명학회 간부들이 택한 전략은 그것을 민족 전체가 담당해야 할 과제로 선전함으로써, 발명진흥사업을 발명학회의 틀을 넘어서민족운동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1933년 6월 발명학회의 기관지 「科學朝鮮」의 창간은 주로 이러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길룡의 창간사는 이를 잘 보여 준다.

『... 빈궁한 우리 새 발명가들의苦心力鬪하는 경험담을 連日聞之하는 本會는 이 기관을 좀 더 확충하여 우리 새 발명가를 실질적으로 지도원조할 만한 시설을 하는 것이 급무인 것을 깨다르스나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막연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이러한 의향과 욕망을 멧멧 간부만 감추어 두고 잇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기관이 조선사회의 복리 행운을 목표삼아 활약코자 하는 것인 이상 만천하 형제자매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으로 여기에 본회의 기관지인 이 잡지의 출생을 보게 된 것이니...⁵⁷⁾ (밑줄은 인용자. 이하 같음)』

즉, 「科學朝鮮」은 발명진흥의 문제를 전 민족

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사회 전체가 발명진흥책을 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통로의 역할을 그 주요 임무로 하고 있었다.

발명학회 간부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재력과 명망을 겸비한 사회명사들의 참여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인이 발명학회에 참가한 것 자체가 바로 사회명사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김용관이 자신을 방문했던 당시를 회고하는 이인의 글은 발명학회 간부들을 찾아다닌 동기와 그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

『1932년 10월의 어느 날 발명가 金容權이 나를 찾아왔다. 그의 말은 발명학회가 재정난으로 유야무야되고 있으니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는 것이다. 발명학회를 처음 만든 것은 1924년이나 그동안 회원들의 재력만으로는 역부족인지라 아무런 사업에도 손을 못댔다고 한다. 김용관의 제안은 발명가만으로는 사업이 어려우니 사회명사들을 망라하여 학회를 재발족시키미 어떻겠느냐는 것이다.⁵⁸⁾』

사회명사의 영입작업은 1933년 6월까지 李仁과 劉銓, 山村銳吉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1933년 6월 20일의 이사회에서 이인이 새로운 이사장이 되어 학회 운영의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사회명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쌓고 있던 이인의 주도 아래 '사회명사들을 망라한 학회의 재발족'이 급속히 진행되었던 것이다. 우선 6월 28일의 이사회에서 기관지 「科學朝鮮」의 발간을 담당할 기관으로 학회 산하에 科學朝

56) 金容權, 「理化學研究機關 設置方針의 私案」, 「과학조선」 1933년 6월호. 11. 김용관은 이 글의 끝에 글의 작성일을 1933년 3월 7일로 표시하였는데, 이 시기는 발명학회의 체제가 어느정도 정비된 직후였다.

57) 박길룡, 앞의 글(주25), 4.

58) 이인, 앞의 책, 85-86.

鮮社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지 학회의 체제를 정비하는 의미 외에도 새로이 영입될 외부 인사들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자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얼마 뒤인 7월 5일의 이사회에서는 학회 고문으로 尹致昊, 朴興植 등 4인과 함께, 새로 설립된 과학조선사의 고문, 편집고문, 이사 등으로 玄相允, 金昶濟 등 19인의 인사를 영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柳光烈, 玄東完 등 6인이 더 추가되어 1933년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사이에 발명학회와 과학조선사의 임원으로 모두 25명이 영입되었다.

이들 영입인사들은 1924년 당시의 발명학회 창립 발기인과 마찬가지로 경성고공 출신자들과 사회명망가들로 구성되었다. 영입인사들의 사회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경성고공을 졸업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기술 또는 발명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는 교육자, 학자, 문인, 언론인, 기독교 운동가, 기업가들이었다.⁵⁹⁾ 지금까지 발명진흥이라는 상대적으로 폭은 좁은 지향 아래 활동하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발명학회는 이제 식민지 시대 조선인 엘리트의 활동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인사들이 모인 집단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인사 영입과 함께, 발명학회의 활동 방향과 이념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로 새로이 영입된 인사들에 의해 기존 발명학회 간부들의 것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이념과 운동노선이 담긴 글이 「科學朝鮮」에 발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존 간부들이 발명의 진흥을 통한 자립 경제의 건설을 추구했다면, 새로이 영입된 인사들은 산업 뿐 아니라 일상생활, 종교, 학문 등 '사회생활 전반을 과학적으로 재편' 하자는 주장을 폈다.

이화고보의 교사이며 YMCA에서 활동하고 있던 金昶濟가 「科學朝鮮」 창간호에 기고한 “文化史上으로 본 現代朝鮮”은 이러한 이념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글이었다. 그에 따르면 서양과 일본이 누리고 있는 과학시대란 “과학을 정치, 경제, 종교 기타 사회전반의 기초로 삼고, 모든 일에 과학적 방법 곧 관찰, 실험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조선사회는 아직 수천년 내려온 낡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은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채로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 민족이 국제적인 생존경쟁에서 ‘劣敗者’의 지위에 처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조선사회 전체를 과학화하는 운동, “과학의 조선”을 건설하는 운동이 긴급하다고 주장하였다.⁶⁰⁾ 이러한 과학적 문명 건설론은 김용관 등의 발명장려-자립적 공업화론에 비하여 사회전반의 과학적 재편을 주장하는, 좀 더 포괄적인 사회개조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주장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을 놓고 보면 그리 새로운 것이 없었다. 김창제

59) 영입인사들의 명단은 「과학조선」, 1933년 7·8월호, 64; 1933년 11월호, 36 등에 실려 있다. 김용관, 이인, 박길룡, 현득영, 강진두 등 기존 발명학회 간부를 제외한 발명학회 임원 27명의 명단과 그들의 직업 또는 사회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교 사 : 현상윤(중앙), 김창제(이화), 이민규(배화), 신봉조(배재), 박해룡(대구사범), 이춘호(연희전문), 박장열(동덕)

언론인, 문인 : 주요한, 설의식, 선우전, 서춘, 김동성, 문일평, 이은상

기업가 : 박흥식, 최남, 유진, 윤주복

기 타 : 윤치호(YMCA), 현동원(YMCA), 산촌에길(경성고공교장 중앙시험소장), 김종석(기술자), 김해림(기술자), 김종선, 정인관

이들 영입인사들 중 경성고공 졸업자들은, 김종석, 김해림, 박장열, 박해룡, 윤주복, 김용암이었다.

60) 김창제, “문화사상으로 본 현대조선”, 「과학조선」, 1933년 6월호, 9-10.

등이 표현한 이념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성향과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1920년대 이래 문화운동이 추구했던 근대화 또는 신문화 건설은 곧 조선사회 전반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1932년 「東亞日報」의 한 사설은 “현대 문화의 진정한 가치란 과학적 사색에서 출발하여 과학적 생활을 형성하는 데 있다”고 말하면서 조선의 신문화 건설을 위해서는 과학적 사상의 보급과 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¹⁾

이러한 경향은 발명학회가 재건되어 활동하던 1930년대 초반의 실제 민족주의 운동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이 시기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은 농촌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産米増殖計劃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농업정책으로 이미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의 농업은 당시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극심한 농업공황을 겪고 있었다. 농촌의 몰락에 직면하여,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이의 극복을 위해 천도교 계열의 조선농민사의 활동, 「동아일보」 계열의 브나로드 운동, YMCA의 농촌사업 등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농촌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자들은 당시 농촌의 위기가 불합리, 나태, 미신 등 농민의 전근대적 습성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농촌활동도 주로 개명한 지식인들이 무지하고 봉건적인 농민들을 계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문맹퇴치, 미신타파, 위생사업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근대적인 품성을 불어 넣어 그들의 생활을 개

선하는 것에 집중되었다.⁶²⁾ 즉, 민족주의자들은 바로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사회를 합리적으로, 즉 과학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같은 시기에 전개된 ‘朝鮮學’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조선학이란 말 그대로 조선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에는 국사 및 국어연구,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1930년대 조선학운동은 당시 지식인들의 무분별한 서구문명 추종을 정정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다. 「朝鮮日報」는 한 사설에서 조선학 열풍에 대해 “그것이 空漠한 코스모폴리탄적인 浮動的인 세계인의 몽상세계에서 嚴正確의인 자기의 현실 조선의 인식과 그 심각한 자기반성을 요하는 소리”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복고적이거나 반서구적 또는 빈과학적인 지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선학이 지향하는 바와 그 연구 방법론은 바로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朝鮮日報」의 같은 사설에 따르면 조선학 연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선사회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것이었다.⁶³⁾ 나아가 조선학 연구는 그 방법론 자체가 과학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했다. 「朝鮮日報」의 다른 사설에서는 조선학 운동을 ‘과학적인 조선연구’라고 규정하였고, 朝鮮語學會의 崔鉉培는 당시 자신들이 벌이고 있던 한글운동을 “우리의 글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사람의 문화적 활동의 이로운 연장으로써의 문자적 사명

61) “문화혁신을 제창함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사상에서”, 「동아일보」 1932년 4월 18일.

62) 1930년대 초반 농촌의 위기와 민족주의자들의 농촌운동에 대해서는, 김상태, 「1920-1930년대 동우회, 농업구약부 연구」, 「한국사론」 28(1992), 209-262를 참조할 것.

63) “조선연구의 衝動 從橫으로 뒤지는 친구조선”, 「조선일보」 1931년 6월 13일.

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하려는”것으로 정의하였다.⁶⁴⁾ 따라서 조선학 운동은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이 맹목적인 서구문명 추종에서 벗어나 자기 민족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었으면서도, 그 연구방법론을 과학에서 찾았고 그 목표 역시 사회의 ‘과학화’와 ‘합리화’에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민족주의 운동이나 동시대의 농촌운동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결국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에게 과학이란 일상 생활, 학문, 경제, 종교 전반의 지도원리였고, 따라서 그들이 추구한 다양한 목표는 곧 사회 전반의 과학화로 표현될 수 있었다. 발명학회에 영입된 사회명사들의 대다수는 바로 이러한 1930년대 초반 민족주의 운동의 흐름에 속해 있던 이들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계몽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던 사립학교 교육자들, 당시 농촌 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문인들이었다. 따라서 「科學朝鮮」의 지면에 새로운 이념이 등장한 사실은 곧 이러한 사회명사 집단의 영입과 함께 그들의 문화운동적 경향이 발명학회에 유입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입 인사들은 동시에 발명학회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발명학회 간부들이 발명가 양성과 이화학연구기관의 설립 등 일종의 ‘전문적’ 기술역량의 양성에 중점을 둔 데 반하여, 새로이 영입된 인사들은 과학지식의 보급, 과학의 ‘대중화’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학의 대중화 노선은 당시 문화운동을 주도하던 민족주의자들의 이념, 즉 조선사회 전반의 합리화, 과학화의 한 표현이었고, 동시

에 당시 농촌운동의 중심적 사업이었던 미신타파, 전반의 합리화, 과학화의 한 표현이었고, 동시에 당시 농촌운동의 중심적 사업이었던 미신타파, 보건위생의 보급, 생활환경 개선 등과 그 목적이 유사하였다. 결국 김용관 등이 발명진흥과 이화학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사회명사들을 영입하려는 노력은 다른 맥락의 이념과 운동노선까지 함께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발명학회 외부의 문화운동에서 비롯된 이념과 노선을 ‘문화적 과학화 이념’ 또는 ‘문화적 과학운동 노선’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념과 노선에 대해 김용관 등 기존의 간부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던가? 그들은 이러한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과학 대중화 운동노선을 전문적인 발명장려와 함께 발명학회의 주요한 사업목표로 설정하였다. 물론 발명학회 간부들은 이미 「科學朝鮮」의 창간을 계획할 때부터 과학의 대중화를 잡지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였다. 발명학회 기관지의 창간을 결의한 1933년 2월 11일의 이사회에서는 기관지의 내용에 대해 “학생층을 상대로 하여 과학상식을 보급하여 발명열을 고취하는”것이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⁶⁵⁾ 또한 박길룡은 창간사에서 「科學朝鮮」의 임무로 전사회적인 발명장려 정책에 대한 논의,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선전 외에도 “문화향상의 기초지식인 과학과 그 응용을 일반 사회에 보급”할 것을 들었다.⁶⁶⁾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지식보급의 과제는 발명진흥의 과제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으며, 대체로 발명가들 또는 미래의 발명기인 학생층

64) 각각 “조선문화의 과학적연구”, 「조선일보」 1934년 5월 10일; 최현배, “한글난해의 심리분석”, 「신동아」 1934년 9월호, 2.

65) 「동아일보」 1933년 2월 13일.

66) 박길룡, 앞의 글(주25), 4.

에게 과학상식을 보급한다는 의미에서 강조되었다. 발명학회 간부들이 사회의 과학화, 과학 대중화의 과제를 「科學朝鮮」 및 발명학회의 주요 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대규모적 인사 영입 이후의 일이었다. 그 분수령이 된 문헌이 「科學朝鮮」 1933년 9월 호에 실린 김용관의 논설, “과학의 민주화”였다. 김용관은 이 글에서 과학의 통속화를 「科學朝鮮」의 ‘本領’이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이 ‘사회 문화의 순화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용관의 통속화 선언 이후 「科學朝鮮」의 내용은 과학상식 기사가 점차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兒童科學”, “家庭科學” 등 실용적 과학 지식을 담은 기사와 유명한 과학자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기사, 신기한 발명품 소개기사 등의 비중이 발명학회의 이념과 사업을 선전하는 기사나 발명가들을 위한 전문적 기사보다 높아졌다.⁶⁷⁾

김용관이 담당했던 “질문응답”란은 애초에는 발명 특허 수속에 관한 것과 과학상식에 관한 것이 반반씩 차지하였으나 1933년 9월호부터 과학상식의 비중이 높아지더니 11월호부터는 과학상식만으로 채워졌다.

발명학회 간부들이 영입인사들의 이념과 노선을 수용한 결과, 이후 발명학회의 사업방향은 발명진흥 사업과 과학대중화 운동의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9월 18일 발명학회와 과학조선사에서 개최한 “자연과학보급과 발명을 위한 좌담회”에서는 ‘조선 산업발전의 추세와 발명장려에 대해

여’, ‘전문적 이화연구기관의 필요유무와 그 설치 방법’과 함께 ‘일반민중에게 자연과학상식을 보급할 방법’이 의제의 하나로 논의되었다.⁶⁸⁾ <계속>

발특9701

안

내

도 서 명	가 격
지금은 발명시대	5,000
역사를 바꾼 세계적인 발명·발견	5,000
재미있는 발명여행	3,500
재미있는 발명학교	3,500
나도 발명왕이 될 수 있다	6,000
이제 I 이론도 만들때다 <I=I, Idea, Invention>	5,500
작은 아이디어로 크게 성공한 세계적인 발명가들	5,500
역사적 발명, 그 뒷이야기	4,000
엉뚱한 발상하나로 세계적 특허를 거머쥔 사람들(1)~(4)	(1)5,000 (2)4,000 (3)4,000 (4)5,000
나도 발명가	3,000
두뇌강타·아이디어 창출	4,000
발명여행(1, 2)	각 5,500원
순간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특허발명 이야기	5,500원

판 매 처 : 한국발명진흥회 자료판매센터
 전 화 : 557-1077/8 교환 225
 전 송 : 554-1532
 담 당 : 김 재 권

67) 과학상식 기사와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기사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학조선」 창간호에는 5/5였던 것이, 김용관이 ‘과학의 민주화’를 선언한 직후인 1933년 11월호에서는 10/4, 그리고 1934년 1월호에서는 18/2로 과학상식기사의 비중 및 기사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8) 「동아일보」, 1933년 9월 20일.